

# ‘메커니즘 수정’ KIA 올라, 에이스 본색 되찾았다



삼성전 6이닝 1실점으로 시즌 10승…2년 연속 두 자릿수

후반기 3연패 딛고 반등 성공…“다승 타이틀 다시 도전”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걸 다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KIA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아담 올러가 흔들렸던 투구 메커니즘을 바로잡고 다시 에이스의 모습을 되찾았다. 후반기 들어 이어졌던 부진을 털어내고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달성하면서 개인 타이틀 경쟁에도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올러는 지난 1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삼성라이온즈와의 주중 1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4피안타 무사사구 6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그의 호투에 힘입어 KIA가 3-1로 승리하면서 올러는 시즌 10승째를 수확했다.

지난해 KBO리그 데뷔 첫째 11승을 거뒀던 올러는 이로써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달성했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6월 30일 SSG랜더스전 이후 처음으로 켈리타스타트(QS·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도 기록했다.

쉽게 얻은 10승은 아니었다.

올러는 전반기에만 9승을 따내며 KIA 선발진의 에이스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흐름이 급격하게 흔들렸다. 7월 16일 SSG전에서 4.1이닝 3실점에 그쳤고 한화전에서 5이닝을 소화하는 데 머물렀다. 특히 지난달 말 대구 삼성전에서는 1이닝 동안 8실점하며 시즌 최악의 투구를 남겼다.

올러는 부진의 원인을 투구 메커니즘에서 찾았다. 경기 당시에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후 구단 전력분석팀과 함께 투구 영상을 살펴 보면서 평소와 달랐던 부분을 발견했다. 매매점 폭염으로 경기 일정에 공백이 생기면서 충분히 수정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다.

올러는 “경기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후 분석팀과 이야기를 해보니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깨가 나오는 위치와 팔리스 포인트 등이 원래 던지던 것과 달라져 있었다. 휴식 기간 동안 그 부분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반등의 상대는 자신에게 시즌 최악의 기억을 안겼던 삼성이었다. 올러 역시 삼성과의 재대결을 기다렸다.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라 경기에서 크게 흔들렸을 뿐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싶었다.

올러는 “마음 한편으로는 삼성과 바로 다시 맞붙고 싶었다”며 “메커니즘을 수정했기 때문에 내가 부진한 게 아니라 그저 한 경기를 잘못 던졌다

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걸 다시 증명할 기회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달라진 모습은 마운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올러는 이날 100개의 공을 던지며 최고 시속 152km의 직구를 앞세워 삼성 타선을 제압했다. 직구 53개와 슬라이더 26개를 중심으로 커브 8개, 체인지업 7개, 커터 6개를 섞었다. 무엇보다 흔들렸던 팔리스 포인트가 안정되면서 직구의 힘과 변화구의 예리함도 되살아났다.

올러에게 이번 10승은 단순히 승리 하나를 추가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후반기 부진을 끊고 전반기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남은 시즌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러도 “10승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7승, 8승, 9승을 할 때보다 훨씬 힘들었던 것 같다”며 “특히 삼성이나 한화처럼 좋은 타선을 상대로 10승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어려웠다. 이제는 본래 페이스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선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한다. 지난해 기록한 11승을 넘어 개인 한 시즌 최다승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 다승과 탈삼진 등 개인 타이틀 경쟁에도 다시 뛰어들겠다는 각오다.

올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승수를 올리고 싶다”며 “다승과 삼진 등 타이틀 부문에서도 다시 순위권에 들어가고 싶다. 도전자의 마음으로 열심히 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양여고, 3년 만에 전국여자축구선수권 정상 탈환

울산현대고와 1-1 접전 후 승부차기 끝 5-4 승리

춘계연맹전 이어 시즌 2관왕…여왕기 패배도 설욕

광양여자고등학교 축구부가 극적인 승부 끝에 3년 만에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정상에 탈환하며 시즌 2관왕에 올랐다.

광양여고는 최근 충주 탄금대축구장에서 열린 ‘제25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고등부 결승에서 울산현대고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광양여고는 지난 2023년 이 대회 정상에 오른 이후 3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았다. 특히 지난 4월 열린 2026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우승에 이어 또 하나의 전국대회 정상에 오르면서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6월 제34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결승에서 울산현대고에 당했던 패배도 2개월 만에 설욕했다.

우승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광양여고는 결승전 전반 17분 울산현대고 엄예빈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골려졌다. 이후 동점골을 위해 공세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울산현대고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패색이 짙어지던 경기 막판 극적인 한 방이 터졌다. 후반 추가시간 4분 홍서윤이 천금 같은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렸다. 기세를 되찾은 광양여고는 연장전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마지막 승부에서는 광양여고의 집중력이 빛났다. 양 팀 키커들이 차례로 골망을 흔든 가운데 울산현대고의 세 번째 키커가 실축하면서 승부의 추가 기용었다. 광양여고 선수들은 끝까지 침착하게 자신의 킥을 성공시키며 5-4 승리를 완성했다.

개인상도 휩쓸었다. 박서인(3년)이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정하은(3년)이 공격상, 김채빈(3년)이 GK상을 받았다. 최서연(2년)은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을 차지했다. 이슬기 감독과 김효선 코치도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으며 선수와 지도자가 대회 주요 상을 석권했다.

이번 우승은 전남 여자축구의 꾸준한 선수 육성 시스템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광양 지역 여자축구는 광양중앙초와 광영중, 광양여고로 이어지는 육성 체계

를 구축하고 꾸준히 전국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광양중앙초는 2023년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동메달, 광영중은 2025년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양여고 역시 지난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남 여자축구의 탄탄한 육성 기반 속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연맹별 전국무대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면서 선수단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광양여고 축구의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탐과 지도자들의 헌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남 여자축구의 탄탄한 육성 기반이 함께 만들어진 결과”라며 “이번 우승의 기세와 자신감을 오는 10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까지 이어가 전남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 KIA, 광복절 맞아 순국선열 뜻 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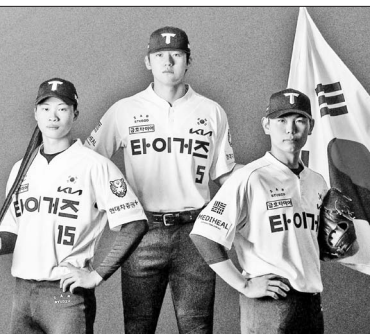
14~15일 특별 유니폼 착용

독립 열사 의복·태극기 영감

KIA타이거즈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나선다. 애국지사 후손의 시구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 등도 마련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

KIA는 오는 14일과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선수단이 광복절 기념 유니폼을 착용한다.

이번 유니폼은 독립 열사의 의복과 태극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전면부에는 기존 영문 “TIGERS”를 한글로 바꾸고 훈민정음체를 활용해 디자인했다. 오른쪽 소매에는 태극기의 건곤감리 패치를, 후면부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 패치를 새겨 광복절의 의미를 더했다.



광복절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구 행사도 이어진다. 14일에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대표곡 ‘아름다운 나라’를 부른 성악가 신문희가 마운드에 올라 시구를 한다. 신문희는 경기 중 클리브 타임에도 ‘아름다운 나라’를 라이브로 선보이며 광복절의 의미를 팬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광복절 당일인 15일에는 애국지사 발표 최병호 선생의 3남인 최광열 광주백범기념관 운영위원이 시구자로 나선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전국 복싱 선수단, 목포서 전국체전 담금질

실업·대학·학교팀 등 14일까지 합동훈련

전국 각지의 복싱 선수들이 목포에 모여 오는 10월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다.

12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2026 하계전지훈련에 참가하는 전국 복싱팀들이 지난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목포 국제축구센터 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목포시청을 비롯해 서귀포시청, 성남시청, 남해군청, 충주시청, 원주시청, 경기교통공사 등 실업팀이 참가했다. 한국체육대학교, 가천대학교, 남부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대학교와 전남체육고등학교, 광주체육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등 학교팀도 함께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실업팀부터 대학·고교 등 다양한 연령

과 수준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합동훈련과 실전형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선수들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팀 간 기술 교류를 통해 기량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목포는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숙박·교통 등 편리한 생활 여건을 갖추면서 전국 선수단의 전지훈련지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 각지의 복싱팀이 목포를 찾아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25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고등부 우승을 차지한 광양여고 축구부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